

# 12. 재해 시 주의사항

## 만반의 준비로 피해를 최소화합시다.

UR도시기구의 중고층 주택은 내진, 내화 성능을 갖춘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러나 지진, 화재, 태풍 등으로 인해 전기, 가스, 수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일단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평소에 거주하는 지자체의 방재 계획이나 해저드 맵 등을 통해 지역의 예상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는 한편, 지정대피소 등의 장소를 미리 확인하고 비상식량을 비축하는 등 대비를 하십시오.

또한, 지자체에서 대피 관련 정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필요한 대피 행동을 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지진·수해 대비 가이드북<프리판>(2025년 8월 발행)’을 참조해 주세요.

[https://www.ur-net.go.jp/chintai\\_portal/kyojyusha/index.html#guidebook](https://www.ur-net.go.jp/chintai_portal/kyojyusha/index.html#guidebook)



## (1) 지진

재해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조**」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행동합시다.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과의 재해 시 연락 방법에 대해서도 사전에 상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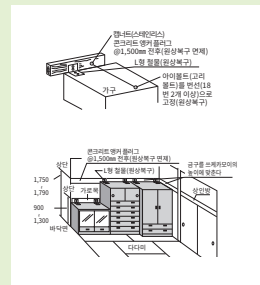
또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자택에 큰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재택 피난(집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재택 피난을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합시다.

### ◆재택 피난을 위한 3가지 ‘준비’◆

#### ① 가구 전도 방지

가. 가구를 벽면에 고정하는 경우

UR도시기구에서는 가구의 전도 방지를 위해 쓰케카모이(창문이 없는 온벽에 있는 상인방)를 보강하는 등 공작물 설치의 모양 변경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모양 변경 기준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서비스 사무소 또는 주거센터 등에 문의하십시오. (오른쪽 그림 참조)



◎쓰케카모이(창문이 없는 온벽에 있는 상인방)를 보강하거나 횡목을 대어 고정하는 경우의 시공

(1) 자재는 「북미산 헴록」「황삼나무」「시트카 가문비나무」「미국편백」「화백」「솔송나무」「일본전나무」「편백」「나한백」 등에서 선택한다.

(2) 치수는 폭 75mm 두께 25mm, 또는 폭 40mm 두께 30mm로 한다.

나. 가구를 천장에서 지지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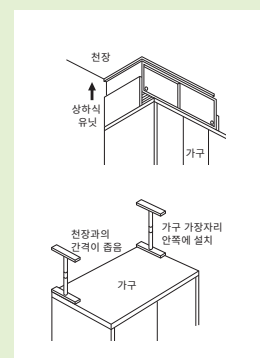
시판되는 기구 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고정합니다.

◎상치형 틈새막이 수납 유닛

높이 조절로 틈새를 메워 천장과 가구를 지지하는 타입

◎버팀봉 타입

버팀봉 타입을 사용하는 경우는 천장에 가구를 지탱할 만한 내력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또한 천장이 튼튼하더라도 천장과 틈새가 좁고 깊이가 있는 가구가 아니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 ② 비축품 확인

재해 시에는 「물류 중단으로 인한 물자 공급 지연」, 「라이프라인(전기·가스·수도) 중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멈추고,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재택 피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비축품을 준비해 둡시다.

## 기본 비축품(최소 3일분, 가능하면 7일분!)

식료품

1인 1일 3식

물

1인 1일 3L  
(음용수+조리용 물 등)

휴대용 화장실

1인 1일 5회

(\*위 내용은 어디까지나 기준량입니다.)



**각 라이프라인이 멈췄을 때를 상상해 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합시다!**

## ③ 휴대용 화장실 사용

재해 시에는 단수로 인해 화장실 물을 내릴 수 없게 되거나, 배수관 파손으로 누수나 역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자택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부터 휴대용 화장실을 비축하고, 실제로 사용해 봅시다.

## 휴대용 화장실 사용 방법

1 비닐봉지를  
변기에 씌운다



변기 안의 물로 휴대용 화장실 봉지가 젖지 않도록 방지한다

2 변좌 위에 휴대용  
화장실을 설치한다



응고제를 넣는다  
(타이밍은 제품에 따라 다름)

3 용변을 본다



4 냄새가 새지  
않도록 단단히  
묶는다



재해 시에는 쓰레기 수거가 곧바로 오지 않는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 일본적십자사 「비상 시 휴대품·비축품 체크리스트」  
<https://www.jrc.or.jp/chapter/tokyo/about/topics/checklist.html>
- 농림수산성 「재해 대비 식품 비축 가이드」  
<http://www.maff.go.jp/j/zyukyu/foodstock/guidebook/pdf/guidebook-3.pdf>



## (2) 태풍 · 수해 등

태풍이나 호우 등이 발생했을 때는 라디오, TV 등의 뉴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십시오.

특히 대규모 수해 발생에 대비하여 평소에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방재 계획이나 해저드 맵 등을 통해 지역의 예상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는 한편, 지정대피소와 긴급 시 대피 장소, 대피 경로를 미리 확인하여 지자체의 대피 관련 정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필요한 대피 행동을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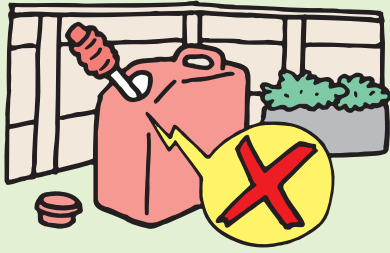
- 바람이 강해지기 전에 발코니의 화분이나 빈 상자 등을 들여놓고, 빨래 건조봉은 후크나 발코니의 「뗏장」에 묶어 고정하십시오.
- 창문과 출입구의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틈새를 비닐 테이프, 수건, 걸레 등으로 막으십시오.  
이 경우, 바깥쪽에서 창호(창틀) 하단에 점착테이프(박스 테이프)를 붙이고 안쪽에서 새시의 하인방 부분을 수건 등으로 눌러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 강풍이 불 때 창문을 열면 문이 흔들리거나 물건이 낙하 · 전도되어 예기치 못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 태풍 시 외출할 때는 특히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앞서 언급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비바람이 심할 때는 틈새로 새어 들어온 물에 다다미가 젖거나 아래층으로 물이 새어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 발코니의 배수구가 막히지 않게 미리 청소해 두십시오.

◎단수, 정전에 대비하여 식수, 손전등 등을 준비해 두십시오.

## (3) 화재

- 이웃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발코니에 있는 가연물을 방으로 들여놓고 창문과 출입구를 잘 닫아 불과 연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게 하십시오.  
불행히도 여러분의 주택에서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불이 커지기 전에 진압하십시오. 불을 내면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잃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 화재의 원인이 기름류라면 이불이나 매트로 덮어 공기를 차단하고, 전기기구나 전선에서 발생했을 때는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거나 분전반의 배선용 차단기를 끈 후 물을 뿌리고, 가스기구 등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나서 임기응변의 조치를 하십시오. 주방 전열기, 난방기구 등의 취급상 주의사항은 구입할 때 충분히 숙지 하십시오.





- 등유 등 인화성이 강한 위험물의 보관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특히 balkoni에 두는 것은 만일의 화재 시 대피로에 지장을 주고 위아래층으로 불이 번지는 원인이 되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 balkoni는 화재 등 긴급 시에 대피로로 사용됩니

다. 특히 옆집과의 경계에 있는 칸막이는 화재 등 긴급 시에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하는 대피구가 되므로, 평상시에 물건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가정용 소화기를 UR도시기구 지정품이라고 속이고 방문판매를 하는 업자가 있다고 합니다만, UR도시기구는 소화기 설치 의무화, 지정 추천 등을 일절 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층 주택의 경우 복도, 계단실 등에 설치된 방화문 주변에 자전거 같은 물품을 두면 방화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대피로도 확보되지 않으므로 물건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방화문을 마음대로 열거나 닫지 마십시오.
-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소방서 및 UR도시기구의 관리서비스 사무소 또는 주거센터 등에 연락하십시오.

#### (4)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택보험 등에 대해)

단지는 많은 분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쾌적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생활상의 매너와 규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화재나 아래층에 누수 등이 발생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입주민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주의로 아래층에 누수를 발생시키면 아래층 입주민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천장, 다다미 등의 보수비와 가구, 침구, 깔개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손해 상황에 따라서는 수백만 엔이 넘는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의 사고에 의한 가재도구 및 제삼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택 보험(화재, 가재, 지진)에 가입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보험회사·보험상품이 없으므로 직접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